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5·18민주대성회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4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사수 및 ‘세월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최해태기자 choi@kwangju.co.kr

5월 단체, 유공자 납골당 건립 추진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탈락 상당수 유공자 위해 김후식 회장, 광주시에 건의...“안장기준 개선안 마련돼야”

5월 단체가 5월 유공자 납골당 건립 방안을 추진중이다. 5·18 관련 국가 유공자 임에도,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당수 유공자들을 위한 조치로, 일각에서는 국립 5·18 묘지 안장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후식(73) (사)5·18 구속부상자회장은 14일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5월 유공자들을 위한 납골당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광주시에 지난해

간운대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로는 5·18 당시 희생된 이들이 매장됐던 5·18 국립묘지 인근 3묘역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유공자들이 국립 5·18 묘지 여유 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납골당 건립에 나서려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이 한몫을 했다.

현행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나마 지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과 맞서며 민주화 운동을 한 공로가 인정, 5·18 민주유공자에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 유공자로 선정됐음에도, 과거 전과 전력 등으로 안장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5월 단체 설명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 현황’(2006년~ 지난해)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 심사 신청건수는 모두 51건. 이중 26명(50.9%)이 대상자로 선정됐고 나머지 25명(49.0%)은 관련법상 결격 사유가 있어 탈락했다.

특히 5·18 전 전과 전력 뿐 아니라 5·18 후유증 등으로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인도 없이 전과 전력이라는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 안장 대상자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자칫, 이같은 결격 사유가 5월 유공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이들도 5·18 당시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투쟁한 유공자들”이라며 “안장 대상자에서 탈락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마저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우왕좌왕’ 5월단체

34주년 기념식 소속 회원 참석 여부는 개인에 맡겨

5월 관련단체가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에 따른 항의표시로 5·18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5월 관련단체 소속 회원들의 참석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5월 관련단체에 따르면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와 (사)5·18 구속부상자회, (사)5·18 부상자회 등 단체장들은 이번 5·18 34주년 기념식에 공식 불참하기로 했으나 회원 개인별 참석 여부는 개인 판단에 맡기

기로 했다. 일부 5월 관련단체는 15일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내부 회의를 통해 불참을 호소하는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면서도 회원 개인별 참석까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5·18 34주년 기념식에 어느 회원이 참석하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5월 관련단체 등이 15일 5·18 34주년 기념식 불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정작 일부 회원

들의 참석 여부는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에 따른 항의 표시로 5·18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식 불참을 선언해 놓고 5·18 관련단체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비난 여론이 높다.

5월 단체 자신들은 주요 사안을 놓고 한데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겐 도움을 중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와 공법단체 추진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갈등과 반목을 보여왔다.

한편, 5·18 민주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등은 이날 5월 단체가 정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안이한 역사 인식에 반발, 5·18 3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참석사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

5월항쟁 발상지 전남대 사상 첫 기념식 치른다

5·18민주항쟁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5·18기념식을 학교 차원의 공식행사로 치른다. 또한 학생들은 1980년 당시와 같은 시국선언을 준비하는 등 전남대와 전남대생들이 5·18 34주년을 색다르게 준비하고 있다.

전남대는 16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국제회의동 1층 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전남대 내에서는 매년 5월 총학생회와 5·18연구소가 개최하는 5·18 기념식과 기념행사가 진행돼왔으나 전남대의 이름으로 기념식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채희종기자 cha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9 해질 20:00
해짐 19:29 달짐 05:45

출근길 안개 주의

오전에 구름 많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4/25	보성	맑음	13/25
목포	맑음	14/22	순천	맑음	16/26
여수	맑음	14/24	영광	맑음	13/23
나주	맑음	13/25	진도	맑음	15/21
완도	맑음	15/23	전주	맑음	14/24
구례	맑음	13/26	군산	맑음	13/22
강진	맑음	15/23	남원	맑음	13/23
해남	맑음	15/22	흑산도	맑음	13/19
장성	맑음	13/23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서~북서	0.5	서~북서	0.5
남부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서부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생활지수

식중독	30
운동	6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26	07:43
여수		14:30	19:48
		09:17	03:15
	21:52	15:13	

◇주간 날씨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	☀	☀	☀	☀	☀	☀
13/27	13/27	13/26	13/26	14/24	13/26	13/25

5·18 경비 경찰 초비상

올해도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여파 긴장

5·18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경찰에 초비상이 걸렸다.

올해 5·18 기념식엔 대통령이 불참한 점 등을 감안해 경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창을 불허한데 따른 반발이 거센데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가 광주시를 전라공천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일부 후보 지지자들의 참석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5·18 34주년 기념식을 위해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 안팎에 10~20개(1000명 가량) 중대를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부총리급 경비 계획을 토대로 한 것으로, 상황이 감지된다면 경력을 더 투입한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력 총원 계획을 세운 것은 예년과 다른 긴장감이 감지되면서다.

보훈처가 이번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단 공연방식을 결정하면서 5월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가 전라공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전라공천에서 배제된 일부 후보 지지자들의 반발도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5·18 민주항쟁이 지난 1997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부총리급이 참석하는 행사인데다, 보훈처장에 대한 시민 정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에 대한 반발이 잦아들기는 커녕,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자칫 돌발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배치 인력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여러 상황으로 비춰 볼 때 돌발 사태 요소는 더욱 많아졌다”며 “보훈처장 등 참석자들에 대한 경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제 8기 인문학강좌 수강생모집 인문학, 그 향을 말하다

5.15 - 7.03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8주) / 동구형 앞 백채빌딩 7층 대강당

개강일시 2014년 5월 15일(목) 저녁 7시 등록비 100,000원(납사 2회 포함)
접수문의 대동문화재단 문화사업팀 TEL. 070-4496-5510, 062-674-6567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daedongc.com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강의일정	날짜	내용	강사
1강	5.15	김성녀의 소리사랑 이야기	김성녀 배우, 국립장극단 예술 감독, 중앙대 교수
2강	5.22	Again and Again (Again 1976)	재은욱 가수(빛물, 석별, 어느날 갑자기 등)
3강	5.29	사대부의 유배와 낙남 - 그 명과 배	조상열 사대문화재단 대표, 인문학 전문 강사
4강	6.5	문화융성시대 - 내 삶을 바꾼 문화예술	임충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전 중소기업청 차장
5강	6.12	화가의 정원 - 죽실현 원림	박태후 문화화가, 죽실현 대표
6강	6.19	책이란 무엇인가 - 빛의 뿌리, 글의 뿌리 그리고 책의 뿌리에 대하여	이기용 도서출판 열화당 대표,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7강	6.26	도전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조용갑 성악가, 베르디 국제 콩쿠르 1위 수상
8강	7.3	관용으로 꽃 피우는 문화	서경주 전 광주MBC 사장, 영국키디프 웨일즈대학 석사

현장 답사 1회 5월 24일(토) 강릉 선교정 - 해운 성가 - 경포대 2회 6월 6일(금) 중부 재천 의림지 - 단양 팔경 - 고수동굴
※ 강의 일정 및 현장 답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민문화재단 대동문화재단 빛고을 문화대학 주최/주관 광주광역시 대동문화재단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에 아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노가리, 왕가리비, 딱터, 산낙지

(주)해감은 광주 상무병원 건너편에 해감 노가리호프 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와!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가맹비가 따르는 새로운 형식의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감농수산에서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판 및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통신판매업신고필
농협보증 에스크로 가입
특허출원 41-2014-0016935
사업자번호 408-86-08501
계좌번호 농협 301-0147-7265-51

HG 해감 노가리 호프
농협회사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